



주간통일정세 2011-13(2011.03.21~03.2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13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영도자 전담 '현지시찰'…총리도 나서(3/23,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최영림 내각총리가 22일 평양시의 남새(채소)전문 농장들을 료해대책했다고 보도.
 - 중앙통신은 앞서 최 총리가 2월23일과 24일 희천발전소 건설사업장을 찾은 데 이어 3월11일에는 장산광산사업장을 찾았다고 보도, 최 총리의 별도 '현지료해'를 알린 바 있음.
 - 현지시찰은 최고지도자가 통치력을 과시하는 북한 특유의 정책지도 방식인데 지금껏 총리를 비롯한 핵심 인사는 수행원의 일원으로서만 동행할 뿐 따로 시찰을 하는 경우는 없었음.
 - 중앙통신은 최 총리의 시찰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가 아니라 "현지에서 료해(파악)했다"는 식으로 '현지료해'로 표현해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와 구분을 명확히 함.

- **김정일·정은 수중발레 관람…'발걸음'도 공연(3/2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평양 창광원에서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수중발레)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수산성체육단과 룡해운성체육단, 백마산체육단 선수들이 김정은 찬양가인 '발걸음'을 비롯해 '공격적이다' '여름' '혁명을 위하여' 등에 맞춰 공연.
 -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는 수영을 비롯한 체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해 나라의 위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함.
 -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김기남·최태복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강석주 내각부총리,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종수·문경덕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박명철 체육상 등이 수행.

- **작심한 北, 내부에도 '빠라 경계' 방송 (3/24,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으로 23일 오후 7시30분께 빠라 살



포에 대해 조준격과 사격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오후 8시10분께는 대내 매체인 조선중앙TV를 통해 같은 사실을 알림.

- 중앙TV는 “최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반공화국심리전책동이 극도에 이르러 25일과 26일 악질 보수단체들을 백령도에 끌어들여 반공화국 뼈라 수십만 장과 불순한 동영상 자료를 수록한 USB, 너절한 1달러지폐 등을 넣은 기구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 보내기로 작정하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사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
- 이어 같은 날 오후 9시15분에는 역시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같은 소식을 전했다며 24일에도 재방송을 내보냄.

● 北김정일·정은 부자, 군수분야 일꾼 만나(3/24,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수산기념궁전에서 북한군 무장장비부문 일꾼 열성자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기념촬영을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김 위원장은 이날 “무장장비부문 일꾼들은 누가 알아주건 말건 그 어떤 명예도 보수도 바람이 없이 무기, 전투기술기재에 뜨거운 정과 온 넋을 기울이는 진정한 애국자”라며 “무장장비부문의 전체 일꾼과 군인들, 과학자, 기술자, 종업원이 전투기술기재의 싸움준비 완성에서 혁신을 일으켜 국방력 강화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
- 중앙방송은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고자 말겠다는 맹세를 다졌다”고 밝힘.
- 이날 기념촬영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박도춘 당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김원홍 총정치국 부국장, 김명국 작전국장, 정명도 해군사령관, 리병철 공군사령관, 최부일 군부총참모장, 김영철 작전국장, 최상려 상장, 윤정린 호위사령관, 현철해·리명수 국방위 국장 등이 배석.

● 中서 탈북자 6명 등 9명 배타고 밀입국(3/24, 연합뉴스)

- 탈북자 6명과 조선족 3명이 24일 중국에서 한 어선을 타고 한국 영해로 들어와 우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들은 전날 중국 다롄(大連)에서 배편으로 서해를 건너 한국 영해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경은 영해에서 이들이 탄 어선을 발견하고 경비함으로 견인해 군산항으로 예인.
- 해경 관계자는 “오늘 오후 탈북자와 조선족 등 9명이 탄 어선이 서해상 우리 측 영해로 허락없이 들어와 어선과 이들을 체포하고 군산항으로 예인해 조사했다”고 밝힘.
- 조사결과 밀입국한 9명은 남자 4명과 여자 5명이고 이들 중 6명은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이지만 나머지 3명은 중국에서 거주한 조선족으로 파악됐으며 조선족 3명은 별도 조사를 거쳐 추방될 예정



● **김정일 부자, 경희극 '산울림' 공연 관람(3/27, 연합뉴스)**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과 함께 새로 건립된 국립연극극장에서 경희극 '산울림'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시대의 명작인 경희극 '산울림'은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정신력에 불을 다는 특출한 매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것으로 이 작품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친근한 길동무로,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또 공연 관람을 마친 뒤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은 커다란 감화력과 인식교양적 의의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위력한 교양수단이 되고 있다”며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는 경희극 '산울림'과 같은 명작들을 더 많이 창조하고 공연활동을 과감히 벌여나가야 한다”고 말함.
- 공연 관람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남 노동당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 부국장, 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종수·문경덕 비서, 주구창 당 기계공업부장, 현철해·리명수 국방위 국장이 동행함.



■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 관람 및 「감사」 전달(3.24, 중통·중방)
 - 김정은, 리영호, 김기남, 최태복, 김경희, 강석주, 장성택, 김정각, 김양건, 박도춘, 최룡해, 태종수, 문경덕, 주규창, 우동측, 박명철(체육상), 리주봉(체육성黨 책임비서) 등 함께 관람
- 김정일, 軍 무장장비부문일꾼 열성자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대화성과 축하(3.24, 중통·중방)
 - 김정은, 이영호, 김영춘, 장성택, 김정각, 박도춘, 주규창(黨 國家 책임일꾼들), 김원홍·김명국·정명도·이병철·최부일·김영철·최상려·윤정린(중앙군사위 위원들), 현철해·이명수(국방위 국장들) 등 참가
- 김정일, 경희극 '산올림' 공연 관람(3.27, 중통)
 - 김정은,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남 노동당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종수·문경덕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현철해·리명수 국방위 국장이 동행

■ 김정은 동향

- 김정은,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 관람(3.24, 중통·중방)
- 김정은, 軍 무장장비부문일꾼 열성자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대화성과 축하(3.24, 중통·중방)
- 김정은, 경희극 '산올림' 공연 관람(3.27, 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北 최영림(내각총리), 만경대남새전문농장·칠골남새전문농장·리현남새전문농장 시찰 및 평양시의 남새생산 대책 마련(3.22, 중통)

나. 경제

● 북한 對EU 수출 전년대비 배 성장(3/22,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지난해 네덜란드에 5천500만유로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면서 대(對) 유럽연합(EU) 수출액이 전년보다 배 넘게 늘어났다고 VOA 방송이 보도.
- EU의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최근 발표한 '2010년 대북한 교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과 EU내 27개국 간 교역액은 1억7천700만 유로로 2009년의 1억2천300만 유로보다 43% 증가.
- 방송은 "교역액 증가는 지난해 북한의 대 EU 수출액이 1억400만 유로로 2009년 5천만유로의 배 넘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며 "작년에 북한이 EU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7천만유로로 2009년의 7천200만 유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함.
- 보고서는 또 북한이 지난해 석유제품 외에도 의류 1천600만유로, 화학물질 900만유로, 기계 및 수송 장비 800만 유로를 EU에 수출했다



고 밝힘.

- 북한이 지난해 EU로부터 수입한 것은 연료 및 광물 1천600만유로, 농산품 1천400만유로, 화학물질 1천200만유로, 기계 및 수송 장비 1천100만유로, 의류 100만유로 등이라고 보고서는 전함.

● **FAO “北 올 곡물수확량 소폭 감소 예상”(3/22, 미국의소리(VOA))**

- 북한은 지난 겨울 심각한 한파에 따른 이모작 작물의 냉해 피해로 올해 수확량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VOA 방송이 보도.
- 방송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전문가들이 최근 북한에서 실시한 작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국가보고서: 북한’을 인용, 겨울밀과 감자 등 봄철 이모작 작물 수확 전망이 나빠 올해 식량 생산량이 약간 줄어들 것이라고 전함.
- FAO는 앞서 북한에서 직접 실시한 수확량 조사를 토대로 식량 회계연도인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북한의 식량 생산량(조정 전 기준)이 5백33만t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북한, 중국에서 식량 확보에 안간힘…(3/22, 연합뉴스)**

-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이 해외 공관에 할당량을 배정, 식량 확보에 나서도록 지시했으며 선양 주재 북한 총영사관에도 옥수수 5천t이 할당됐다”며 “북한 총영사관은 중국 동북 3성 정부에서 각각 1천t씩 지원받아 3천t을 해결했고 추가 식량 확보를 위해 중국 내 조선족 기업인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한 조선족 기업가는 “최근 선양의 북한 총영사관이 대북 무역을 하거나 북한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조선족 기업인들에게 수천t에서 많게는 1만t의 옥수수 지원을 요청했다”며 “지원하고 싶어도 중국 당국의 식량 수출 규제에 따라 북한으로 보내는 식량에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말함.

● **北 경제활동참가율 70%…연료는 석탄. 나무(3/22, 연합뉴스)**

- 통계청이 발표한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분석’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0.2%로 남한보다 높긴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시기는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소학교, 중학교 취학률은 의무교육에 따라 100%에 달하지만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고, 확대가족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평균적인 주택규모는 남한보다 작으며 연료로는 석탄과 나무가 주종을 이룸.

● **작년 북·중 교역 35억 달러…32% 증가(3/23,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전년보다 32% 증가한 35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북한이 중국에 석탄을 대량 수출하고 중국에서 원유



- 를 수입하는 등 ‘연료 돌려막기’에 나선 때문이라고 RFA 방송이 보도.
- 방송은 중국의 해관과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작년 양국 교역액이 총 34억6천만 달러로 전년도 26억2천만 달러에 비해 32% 증가했으며 양국 교역액이 30억 달러를 넘은 것은 2004년 이래 처음이라고 전함.
- 작년 북 중 교역에서 북한의 무역 적자액은 약 10억9천만 달러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
- 방송은 북한의 대중 수출품 중 광물성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은 2008년부터 지속돼온 현상이며, 작년 광물성 제품의 수출액이 전년도보다 무려 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함.
-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원유로, 중국 해관이 발표하지 않은 8~11월 통계치를 제외한 전년도 총 원유 수입액과 비교하면 무려 98% 늘어났고, 원유에 이어 휘발유 등 석유연료와 수송용 자동차, 섬유제품, 곡물 등이 뒤를 이음.
- 곡물 수입 현황을 보면 밀가루 수입이 전년 대비 200%, 쌀과 대두는 71%와 40%씩 증가했고 비료 수입도 전년보다 85%나 늘어남.

다. 군사

- 北 리비아 공습 비난…“자위력이 전쟁 막아”(3/22, 조선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리비아 핵 포기 방식”이란 바로 ‘안전담보’와 ‘관계개선’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상대를 얼려 넘겨 무장해제를 성사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덮치는 침략방식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지구상에 강권과 전횡이 존재하는 한 자기 힘이 있어야 평화를 수호할 수 있다는 진리가 다시금 확증됐다”고 밝힘.
 - 북한이 이집트,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이후 이에 관해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가 선택한 선군의 길은 천만번 정당하고 그 길에서 마련된 자위적 국방력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더없이 소중한 억제력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
 - 대변인은 “19일 미국은 일부 서방나라들과 야합해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개시했다”며 “우리는 이것을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영토 완정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그 나라 인민의 존엄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최대의 반인륜 범죄로 단죄 한다”고 말함.
 - 그는 또 “이러한 전쟁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즉각 중지돼야 한다”며 “주권국가의 국권을 무시하고 유엔의 간판을 도용해 내정간섭과 무력침공을 자행하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은 오늘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교란시키는 화근이 되고 있다”고 주장.



라. 사회·문화

- **김일성 생일 맞아 내달 평양서 ‘친선예술축전’(3/2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1일 고(故) 김일성 주석의 99회 생일(4.15)을 맞아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평양에서 열린다고 예고.
 - 방송은 “이번 축전은 다음해에 수령님의 탄생 100돌을 앞두고 진행돼 내외의 커다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며 “축전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국제·국내 콩쿠르 수상자와 명배우로 구성된 수많은 예술단과 무용단, 교예단, 해외동포예술단과 우리나라 예술단이 참가하게 된다”고 밝힘.
 - 북한은 그동안 김 주석 생일 행사의 일환으로 매년 해외 예술단체를 초청해 개최하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2008년부터 격년제로 바꾸고, 작년에는 국내 행사로 ‘제2차 태양절기념 전국예술축전’을 열었음.

- **北 ‘물의 날’ 맞춰 수해방지 집중강조(3/22,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은 ‘물 자원 관리에 힘을 넣고 있는 조선’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조선에서 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해마다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나라에서는 모든 하천, 저수지들에 흘러드는 물량 예보와 장마철 큰물예보를 제때에 정확히 하며 재해를 미리 막기 위한 조기경보체계도 세워놓았다”고 전함.
 - 중앙통신은 “나라의 중요한 하천인 대동강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동강국토환경종합계획을 집행하고 있으며 물 자원 보호와 관리, 물 절약에 관한 선전활동도 광범히 벌이고 있다”며 “유엔식량농업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물 자원 관리를 위한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
 - 노동신문은 “급속한 인구성장과 지구 온난화, 환경오염 등은 물의 수요와 공급 간의 모순을 심화시켜 지구상에 물 부족난을 몰아오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전함.
 - 조선중앙방송도 조선자연보호연맹중앙위원회 박웅 연구사와의 대담 형식으로 물 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빗물 이용 방안을 제안.

- **北도 영어 열풍…원어민교사 잇단 초청(3/23,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 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캐나다의 기독교계 구호단체인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ennonite Central Committee)’에 평양소재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원어민 교사 2명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
 - 선발된 교사들은 연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북한에서 근무하며 주5일, 하루 3~4시간씩 학생들을 가르치고 방과 후에는



- 일주일에 한두 차례 교사들에게도 영어를 가르치게 됨.
-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측은 “북한이 우리 단체에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들을 직접 가르칠 교사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라며 “북한 당국이 학생들의 영어회화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전함.
 - 뉴질랜드의 민간단체인 ‘뉴질랜드-북한사회(NZ-DPRK Society)’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평양 금성학교와 금성 제1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음.
 - RFA 방송은 “북한과 뉴질랜드 간 교류증진을 위해 설립된 이 단체는 북한이 외부세계와 교류를 증진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영어 교육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며 “금성 제1중학교는 북한의 미래를 이끌 11~17세 영재 600여명을 교육하는 곳으로 북한의 컴퓨터 수재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라고 소개
 - 북한의 요청으로 캐나다, 뉴질랜드의 단체들 외에도 영국 정부 산하 영국문화원, 미국의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등에서 파견하는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영어교사가 늘면서 북한 학생들의 토플(TOEFL) 성적도 눈에 띄게 오르고 있음.
 - 토플 시험의 주관사인 미국교육평가원(ETS)의 톰 유잉 공보관은 “2009년 세계 평균점수가 80점이었는데 북한의 평균 점수는 75점이었다”며 “2007년에는 69점, 2008년에는 72점이었는데 3년 사이에 6점이 오른 셈”이라고 말함.

2. 대외정세

- 北김영남, 지진 피해 日총련에 위로전문(3/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진 피해를 본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에게 위로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 상임위원장은 서만술 의장 앞으로 보낸 전문에서 “일본 도호쿠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넓은 지역에서 대지진과 해일로 총련 조직과 동포들 속에서 많은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에 접해 총련 중앙상임위원회와 피해지역 총련 일꾼과 동포,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동포애적 위문을 보낸다”고 밝힘.
- 北, 日에 10만불 위문금…동포엔 50만불(3/24, 조선중앙통신)
 - 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 명의로 재일동포에게 위문금 50만 달러를 보내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고, 조선(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도 일본적십자사에 10만 달러의 위문금을 보내고 막대한 인명 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안은 강진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앞서 조선적십자회는 지난 14일에는 장재언 위원장 명의의 전문을



고노에 다다테루(近衛忠輝) 일본적십자사 대표에게 보내 동북부 지방에서 발생한 지진 및 해일 피해자들을 위로.

● **北, FAO에 구제역 백신. 장비 긴급 요청(3/25, 연합뉴스)**

- 북한이 현지에서 확산하는 구제역을 봉쇄하는 데 필요한 백신과 관련 장비를 긴급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밝힘.
- FAO는 북한에 관련 인력을 훈련하고 물자 공급과 인프라 구축, 감시-보고-대응 체제를 설치하는데 당장 100만 달러(70만4천유로)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
- FAO는 북한의 13개 시·도 가운데 8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많은 가축이 구제역으로 폐사했다. 가축은 북한의 식량안보에 사활이 걸린 것이다. 특히 암소와 수소는 우유 생산과 경작 모두에 중요하다”고 지적.

● **北 외무성 리근 국장 베를린 방문(3/25,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국국장이 독일에서 열리는 북한과 미국 간 비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24일 베를린을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중국 베이징을 출발,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 오후 5시40분(한국시각 25일 오전 1시40분) 베를린 테겔 공항에 도착한 리 국장은 이번 토론회의 의제, 전망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며 입을 굳게 다문 채 공항을 빠져나와 북한대사관으로 향함.
- 아스펜 연구소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 리근 국장 등 북한 관리와 미국의 전 고위 관리 및 전문가들을 초청해 비핵화와 북·미 관계 등 한반도 상황에 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 북한 측 6명, 미국 측 6~9명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는 북핵 문제의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회의와 이를 토대로 정치적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회의 등 2개 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짐.
- 주말 열리는 1차 토론회에서는 미국 측에서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 등 전직 관료들과 핵 전문가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 내주 초 토론회에는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리처드 알렌 스탠퍼드 대학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 주유엔 대사를 지낸 토머스 피커링 전 국무차관, 주한 부대사를 지낸 에번스 리버어 올브라이트스톤브릿지재단 선임국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짐.

● **북·미 토론회 베를린서 시작(3/26, 연합뉴스)**

- 북한 당국과 미국 민간기관 관계자들 간의 토론회가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시작되었고 토론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등에 관한 실무적, 기술적인 논의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짐.
- 토론회에는 북한 외무성 연구원 등 3명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국



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베를린에 도착한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국국장은 참석하지 않음.

- 미국 싱크탱크인 아스펜 연구소 독일 지부의 초청으로 베를린을 찾은 양측은 26일까지 북핵 문제의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토론회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정치적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2차 토론회를 내주 초 가질 것으로 알려짐.
- 2차 토론회에는 미국 측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리처드 알렌 스탠퍼드 대학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 유엔주재 대사를 지낸 토머스 피커링 전 국무차관, 주한 부대사를 지낸 에번스 리비아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재단 선임국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짐.

● **北경제대표단, 美서부서 자본주의 경제 체험(3/26, 연합뉴스)**

- 미국 대학 연구소 초청으로 방미 중인 북한 경제대표단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지역의 에너지 및 첨단 산업을 둘러보며 자본주의 경제를 직접 체험.
- 북한의 경제 관련 부처 중간급 간부들로 알려진 이들 대표단 12명은 이날 오전 숙소인 샌디에이고 인근 라호야의 에스탄시아 호텔에서 소형버스를 타고 이 지역의 세계적인 에너지기업인 '셈프라에너지'(Sempra energy)를 방문해 회사를 둘러보고 이어 오후 2시부터 샌디에이고 북쪽 칼스배드에 있는 생명공학기업 '라이프 테크놀로지스'(Life technologies)를 방문해 첨단 생명공학 시설을 둘러봄.
- 앞서 북한 대표단은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샌디에이고) 산하 국제분쟁협력연구소(IGCC) 수전 셔크 소장 초청으로 지난 21일 샌디에이고에 도착, 이 연구소에서 시장 경제와 미국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수업을 받았고 간간이 기업체 견학을 병행한 것으로 알려짐.
- 대표단은 26일 샌디에이고에서 관광을 한 후 27일 새벽 뉴욕으로 떠나 미국과 아시아의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세워진 비영리. 정치 재단인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짐.



■ 기타 (대외)

- “美國은 MD를 비롯한 우주군사화와 군비경쟁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 담보 △우주군비경쟁 금지 등을 포괄하는 국제적 협약의 필요성” 제기(3.22, 중통·노동신문)
- 日本 대지진과 해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 및 인적·물적피해 증가, 여진 발생 등 피해상황 보도(3.22, 중통)
- 北, 미국이 ‘국가 군사전략보고서’에서 “중국과 동반자관계 수립을 운운하며 ‘중국 위협설’을 유포하여 反중국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양국 군사적 대립 심화” 전언(3.24, 중통·노동신문)

3. 대남정세

● 北 '정주영 추모' 특집영상 선보여(3/23, 연합뉴스)

- 북한이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10주기를 맞아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위인의 손을 잡고’라는 제목의 22분짜리 특집영상을 선보임.
-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1일 “북남 사이의 경제교류협력사업에 큰 기여를 한 애국적 기업인”이라고 정 명예회장을 소개하고 고인이 1998년 6월 소 500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통해 방북해 고향인 강원도 통천을 찾은 장면 등이 담긴 추모영상을 내보냄.
- 소떼가 광활한 초지를 내달리는 모습으로 시작되는 이 영상물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 명예회장, 정몽헌(2003년 타계) 현대그룹 전 회장과 딸 정지이(34) 등 현대그룹 3대와의 인연 담겨 있음.

● 北 "삐라 살포 땀 조준사격"...또 위협(3/23,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전선서부지구사령관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 군대는 괴뢰들의 광란적인 심리모략행위에 대처해 전선서부는 물론 전반적인 전선에서 반공화국심리전 본거지에 대한 항시적인 직접조준격파사격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임의의 시각에 실전행동으로 진입하게 돼있다”고 밝힘.
- 앞서 지난달 27일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은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심리전 행위가 계속되면 자위권 수호를 위해 임진각 등 심리전 발원지에 대한 조준격파사격을 단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음.



- 전선서부지구 사령관은 이어 “군사적 견지에서 볼 때 심리전은 곧 전쟁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 군부호전광들은 악질보수 단체들을 전연에 끌어내어 뼈라 살포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
- 그는 “연평도 포격전의 교훈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거든 뼈라 살포를 포함한 모든 심리전 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경고.

● 남북 백두산화산 민간협의 29일 개최(3/24, 연합뉴스)

- 백두산 화산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 민간 전문가 간 협의회가 오는 29일 우리 측 지역인 경기도 문산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는 24일 “북측이 백두산 화산활동과 관련한 우리 측 수정제에 동의한다는 지진국장 명의의 통지문을 우리 기상청장 앞으로 오늘 보내왔다”고 밝힘.
-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화산연구소는 민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우리 측 민간 전문가들 가운데 5명 안쪽의 대표단을 선정하고 협의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
- 북측은 앞서 지난 17일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와 현지답사, 학술토론회 등 협력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자고 통지문을 보내옴.

● ‘백두산협의’ 전문가명단 北에 통보(3/25, 연합뉴스)

- 통일부는 오는 29일 경기도 문산에서 열리는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 민간 전문가 협의회에 참가할 우리 측 대표단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 김기영 강원대 지구물리학과 교수, 이운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등 4명의 명단을 통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측도 이날 오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화산연구소 부소장 윤영근 단장과 장성렬, 주광일 등 3명의 대표단 명단을 보내옴.
-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 측 민간 전문가들만 참여하고 정부는 대표단의 신변안전과 출입조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 정부는 또 협의회와 관련한 경비는 절차가 오래 걸리는 남북협력기금보다는 통일부 일반예산에서 지원하기로 함.

● 北 “천안함·연평도 모두 남측 도발”(3/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왜 천안호사건에 집착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천안호 사건이 외세와 공조해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 군사적 압박을 실행하기 위해 꾸며낸 1차 도발이라면 연평도포격전은 북침도화선에 불을 지피기 위한 계획적 2차 도발”이라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를



외면하고 천안호사건과 연평도 포격행위에 계속 집착하면서 대결 일변도로 내달려 조선 정세가 역사상 최악의 사태에 처하고 있다”고 강조.

- 중앙통신은 또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 필명의 논평 전문을 게재해 “천안호 침몰사건은 보수패당이 미국의 조종 밑에 동족 대결 책동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 꾸며낸 특 대형 모략극, 자작극”이라고 비난.
- 중앙통신은 이어 “그들은 이 사건을 구실로 반공화국 대결전쟁 소동을 1년 내내 벌이며 우리 측의 주동적 발기와 성의 있는 노력으로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화를 파탄시키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갔다”고 덧붙임.
- 중앙통신은 또한 노동신문의 개인필명 논설을 게재해 “북남관계의 개선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절박한 과제”라며 “북남관계를 개선하자면 무엇보다도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대화를 적극 실현해야 한다”고 전함.
- 논설은 “남측은 이미 다 해결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한 3대 조건을 계속 들고 나오고 심지어 반공화국 도발사건들인 천안호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도발 방지 약속, 비핵화 진정성’ 따위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모처럼 마련된 대화들을 파탄시켰다”고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대화가 없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초보적 수단마저 상실한 북남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연평도 포격사건이 잘 말해주고 있다”며 위협.

● 北주민 27명 남하 50일 만에 송환(3/27, 연합뉴스)

- 지난달 5일 서해상에서 표류해 남하한 북한 주민 27명(남성 9명, 여성 18명)이 27일 낮 12시55분께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상에서 자신들이 표류 때 타고 내려온 선박(5t급 소형 목선)편으로 북측으로 귀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우리 해경정은 NLL 인근으로 이동해 27명을 이들이 타고 온 선박으로 옮겨 태웠으며, 북한 주민들의 선박은 NLL을 넘어 북측으로 향했고 북측에서는 경비정 한 척이 NLL 인근까지 나와 북측 주민들의 선박을 인도.
- 대한적십자사도 이날 오후 보도 자료를 내고 “북한 주민 27명이 그들이 타고 온 선박을 타고 낮 12시55분께 NLL상 지점(북위 37도 41분 25초, 동경 125도 36분 57초)을 통해 북으로 송환했다”고 확인.



■ 기타 (대남)

- 北, 南 군부의 美産 무기도입계획(F-15K, 보잉E-737 등)에 대해 “韓 美의 反北전쟁론의 協作품”이라고 시비(3.23, 중통)
- 南 당국자들의 ‘對北진정성’ 제기는 “反北정책 합리화, 남북관계 파 단책임 轉嫁 요설”이라고 持續 비난(3.23, 중통·노동신문·평방)
- 정부의 ‘서해 5개 도서 무기증강배치’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관련 “총돌의 불씨를 안고 있는 NLL을 고수해 새 전쟁 도발의 구실을 찾으려는 행위”라고 비난(3.24, 중통)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클린턴 “더 건설적인 北반응 기대”(3/23)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각) 북핵 문제와 관련된 상황이 변하고 북한의 긍정적 움직임이 있기를 기대했음.
- 클린턴 장관은 이날 일본 후지TV와의 회견에서 북한이 최근 6자회담 내 우리측 농축프로그램 문제 논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이것이 상황을 변화시키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그는 “우리는 일본을 포함한 6자회담 파트너들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협력하고 있다”면서 “그들(북한)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밝혔음. 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그들(북한)에 의한 좀 더 건설적인 반응을 이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그는 또 이번 주말 미국 싱크탱크의 주선으로 미국의 과거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 외무성의 리군 미국국장이 독일 베를린에서 만나 토론을 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우리가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며 미 정부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혔음.
- 그는 “남북 간에 대화를 시작하고 서로 소통을 하도록 하려는 노력들이 있다”면서 “다른 모든 나라가 어떤 문제에 대해 북한과 접촉하듯이 우리도 진행 중인 접촉은 있지만, 공식적인 것은 계획된 것이 없다”고 말했음.

● 美연구소, 북·미 토론회 확인..일정 비공개(3/24)

- 미국 싱크탱크인 아스펜 연구소 독일 지부는 23일(이하 현지시각) 북한과 미국 간 비공개 토론회가 이번 주말 독일에서 개최된다고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음.
- 연구소의 찰스 킹 말로리 4세 소장은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이번 주말 독일에서 북한의 정부 대표와 미국의 전 고위 관리 및 전문가들이 만나 한반도 상황에 대해 토의한다”면서 “그러나 양측이 모두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시간,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음.
- 토론회에는 북한 외무성 리군 미국국장 등 북한 관리와 과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리처드 알렌 스탠퍼드 대학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미국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음.



- 이번 토론회는 정부 간 직접 대화는 아니지만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 재개, 미국의 대북 쌀 지원 등의 문제에 관한 입장을 개진하고, 의견 조율 가능성을 타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中매체 “리비아는 北에 핵무기필요 반면교사”(3/25)

- 중국의 반관영 언론매체인 환구시보가 25일 “북한에게 서방의 리비아 공격은 핵 포기를 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 사례가 될 것”이라는 한반도 전문가의 기고문을 실었음.
- 문제의 기고문은 잔더빈(詹德斌) 푸단 대학 한국연구센터 겸임연구원이 쓴 것으로, “앞으로 리비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지와는 관계 없이 서방의 이번 리비아 공격은 북한 핵문제를 더 막연한 방향으로 몰아 북 핵 6자회담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음.
- 리비아가 결국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탓에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서방이 쉽게 공격할 수 있었고, 이런 광경을 목도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를 교훈삼아 적어도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강하게 입장을 걸 것이라는 주장임.
- 잔 연구원은 “리비아가 지난 2003년 12월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를 선언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이 리비아와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미국은 북한에 ‘리비아 모델’을 따라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라고 여러 차례 제의했다”면서 “북한은 서방의 리비아 공격을 보면서 핵 포기를 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북한은 서방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없애고 무아마르 카다피를 공격한 상황에서 그 다음 차례가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최근 리비아사태는 북한으로 하여금 ‘자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그는 특히 “북한은 앞으로 국방건설을 더 중시하면서 핵과 미사일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 잔 연구원은 “‘오디세이 새벽(Odyssey Dawn)’으로 명명된 서방의 리비아 공격이 리비아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줄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게는 ‘리비아 모델’의 결과는 이렇다 라는 메시지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북한은 오디세이 새벽 작전을 핵 포기를 거절하는 빌미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북 핵 6자회담장으로 북한을 유도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회담이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서방의) 침략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핵무기 보유국의 신분으로 핵무기 감축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음.

● 북·미 토론회 베를린서 시작(3/26)

- 북한 당국과 미국 민간기관 관계자들 간의 토론회가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시작됐음. 양측은 시내 힐튼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반



- 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등에 관한 실무적, 기술적인 논의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음.
- 토론회에는 북한 외무성 연구원 등 3명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베를린에 도착한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국국장은 참석하지 않았음. 회의에 참석한 북한 측의 한 관계자는 “서로 입장을 타진해보고 있다”면서 “실무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음.
 - 미국 싱크탱크인 아스펜 연구소 독일 지부의 초청으로 베를린을 찾은 양측은 26일까지 북핵 문제의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토론회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정치적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2차 토론회를 내주 초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 2차 토론회에는 미국 측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리처드 알렌 스탠퍼드 대학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 유엔주재 대사를 지낸 토머스 피커링 전 국무차관, 주한 부대사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 재단 선임국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음.

● 힐 “中 대북지원은 6자회담과 모순”(3/27)

- 크리스토퍼 힐 전(前) 미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27일 중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 정책과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조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며 “이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힐 전 차관보는 이날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 비핵화 관련 국제세미나 도중 언론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의 대북지원 정책이 성공할 지 의문이며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지위와 거리가 있다”고 말했음.
- 힐 전 차관보는 이어 “중국이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북한을 돕는 것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을 심화 시킨다”며 “이것이 중국에는 이익이 되지만 6자회담에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모든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국이 6자회담에서의 역할과 대북정책을 적절히 조율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거듭 지적했다.
- 그는 또 중국이 천안함 폭침사건을 두고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은데 대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알지 못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음. 그는 “중국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중국은 한국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면서도 사실을 다루지 않으려는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음.
- 일각에서 제기되는 6자회담 무용론과 관련, 힐 전 차관보는 “6자회담에서의 문제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할 준비가 돼있느냐는 것”이라며 “6자회담은 매우 유연한 구조이며 다양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유용성을 강조했다.



- 그는 특히 “6자회담 과정과 협상은 북한이 회담을 회피하게 만들지 않고 변명하지 못하게 했다”며 “6자회담을 통해 원자료를 폐쇄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가동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음.
- 힐 전 차관보는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것을 반대한다”며 “북한이 6자회담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했음.
-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대북정책의 최우선 요소는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 <美-中 전문가, 북 핵 해법 놓고 ‘팽팽’>(3/27)

-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이 24~27일 경기도 광주의 곤지암리조트에서 ‘핵확산 방지를 위한 비전, 전략 그리고 제도적 장치’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세미나에서는 미국과 중국 전문가의 북핵 문제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음. 미국은 북 핵 6자회담 의장국이자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북한에 핵을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더욱 행사해야 한다며 중국의 대북지원을 비판한 반면, 중국은 불공평한 비난이라고 맞섰음.
-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크리스토퍼 힐 전(前)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소위 ‘햇볕정책’과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조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음.
- 그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북한을 지나치게 돕는 것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을 심화 시킨다”며 “이것이 중국에는 이익이 되지만 6자회담에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운링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는 “중국은 상황을 안정시키고 가장 나쁜 상황을 막기 위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며 “이것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기본적 지원이고 단지 북핵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음.
- 장 교수는 이어 “우리는 북한을 통제할 수 없기도 하다”며 “북한을 압박하지 않는다고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그는 나아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국가는 바로 한국”이라며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한 접촉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음.
- 일본의 다나카 히토시(田中 均) 전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는 쪽으로 주장을 펼쳤음. 다나카 전 국장은 “미국, 한국, 일본은 중국이 북한과 전략적 동맹을 재고할 정도로 한반도 상황이 위험해졌다는 것을 중국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며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로서 북한이 추가적 군사적 도발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그는 6자회담이 재개되기 전 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사이의



양자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미국과 북한 간 실질적인 대화가 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나. 미·북 관계

● 美, ‘北금융기관과 거래’ 추가주의 권고(3/22)

- 미국 재무부는 21일 북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는 위험이 따른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미국 내 금융기관에 권고했음.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지난달 북한을 자금세탁 문제와 관련해 이란과 같은 최고 수준의 주의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반영, 이날 이 같은 권고문을 발표했음.
- FATF는 북한이 테러자금 조달방지 비협조국가로 분류된 이후에도 관련 제도를 충분히 개선하지 않았다면 지난달 25일 열린 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조치 수준을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대응 조치’로 높이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음.
- 재무부는 미국 내 금융기관들은 FATF가 지목한 국가의 승인 하에 운영 중인 외국은행들과의 거래에 더욱 강화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음.

● 美, 카터 방북계획 확인..“정부 메시지 없다”(3/25)

- 미국 국무부는 24일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의 방북 계획을 확인했음.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카터 전 대통령의 다음 달 방북 추진과 관련, “우리도 그의 여행(계획)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음.
- 토너 부대변인은 하지만 “그의 여행은 명백히 오로지 사적인 자격”이라면서 “그는 공식적인 미국 대표단과 함께 가지 않으며, 미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메시지도 갖고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 방문에 대해 (정보를) 전달받은 것 외에 어떤 접촉도 그와 갖지 않았으며, 그와 얘기를 할 어떤 계획도 알지 못 한다”고 덧붙였다.
- 그는 카터의 구체적 방북 시기 등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카터재단 측에 문의하라고 말했음.
- 카터는 다음 달 중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 전 노르웨이 총리 등 전직 국가수반 모임인 ‘엘더스 그룹’(The Elder’s Group) 멤버들과 함께 방북할 것으로 알려졌다.

● 케리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 재개해야”(3/25)

-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24일 지원식량의 엄격한 분배 모니



- 터링 실시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케리 위원장은 이날 유엔이 북한의 주민들을 위한 국제적 식량지원을 호소하고 나선 데 맞춰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말했다.
- 케리 위원장은 “미국은 오랫동안 정치와 인도적인 사안을 현명하게 분리해 왔다”면서 “이런 전통에 맞춰 우리가 지원한 식량이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검증할 능력만 있다면 북한의 심각한 기근과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식량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음.
 - 케리 위원장은 “2008년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미국 내 비정부기구(NGO) 컨소시엄을 통해 시행한 모니터링을 벤치마킹해 엄격한 모니터링을 한다면, 우리는 지원된 식량이 의도했던 사람들에게 도달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케리 위원장은 대북 지원 식량은 식량부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는 유아, 임산부, 노인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선적된 식량은 항구에서 북한 내 시, 도의 분배 처까지 추적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케리 위원장은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식량분배의 감독을 위해 분배 처에 임의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식량 포장 겉면에는 미국 민의 정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에게 분명하게 알리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 <美 ‘대북 식량지원 행보’ 본격화할 듯>(3/25)

-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에 대한 유엔의 3개 기구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에 따라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내부 검토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세계식량프로그램(WFP) 등 국제기구의 평가 결과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미국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 일단 600만 명에 대한 43만t의 식량지원을 권고한 유엔 보고서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자체적인 평가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의 보고서대로 긴급한 지원 필요성은 있는지, 있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등에 대해 각자 여러 자료 등을 활용해 ‘검증’하는 작업을 의미함.
- 유엔의 보고서 발표가 공식적으로는 25일에 있을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 같은 평가 작업은 내주 중이나 착수될 전망이다. 유엔의 보고서 발표로 대북식량 지원 문제는 다음 수순으로 진행되게 됐지만, 관계기관 간 협의와 내부 조율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입장이 바로 정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24일 “당장은 미국의 입장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은 돼야 최종적인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상태임.
-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인도주의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는



분리하겠다면서 대북 식량지원을 강하게 시사해 왔음. 또 지원 방침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문제는 양과 시기라는 관측도 적지 않은 상황임.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식량 지원 문제와 관련, “식량지원의 기준은 정치와는 관련이 없다”고 거듭 밝혔음.

- 그러나 변수는 있음. 당장 의회 내에서는 공화당 강경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북식량 지원에 반대하는 기류가 존재함.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은 식량을 지원할 경우 내년 김일성 출생 100주년 기념 생일 행사용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음.
- 의회 내 반대기류가 행정부의 운신에 제약을 가할 수 있음. 물론 식량지원에 대한 지지도 적지 않음. 당장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은 24일 지원식량의 엄격한 분배 모니터링 실시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오바마 행정부는 내부적으로 유엔 보고서에 대한 평가 작업을 끝낸 뒤 한국 정부와도 긴밀한 조율작업을 벌일 전망이다. 이미 양국 정부 간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 거의 매일 같은 물밑 협의가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음.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식량사정을 분석한 유엔 보고서 내용에 대한 평가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음.
- 2009년 중단된 대북식량 지원을 미국이 2년 만에 재개하면 북·미 관계에는 ‘훈풍’이 예상됨. 그러나 북한이 기대했던 것보다 지원되는 식량의 규모가 작을 때는 분위기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 北경제대표단, 美서부서 자본주의 경제 체험(3/26)

- 미국 대학 연구소 초청으로 방미 중인 북한 경제대표단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지역의 에너지 및 첨단 산업을 둘러보며 자본주의 경제를 직접 체험했음. 북한의 경제 관련 부처 중간급 간부들로 알려진 이들 대표단 12명은 이날 오전 숙소인 샌디에이고 인근 라호야의 에스탄시아 호텔에서 소형버스를 타고 이 지역의 세계적인 에너지기업인 ‘셈프라에너지’(Sempra energy)를 방문해 회사를 둘러봤음.
- 대표단은 이어 오후 2시부터 샌디에이고 북쪽 칼스배드에 있는 생명공학기업 ‘라이프 테크놀로지스’(Life technologies)를 방문해 첨단 생명공학 시설을 둘러봤음.
- 앞서 북한 대표단은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샌디에이고) 산하 국제분쟁협력연구소(IGCC) 수전 셔크 소장 초청으로 지난 21일 샌디에이고에 도착, 이 연구소에서 시장 경제와 미국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수업을 받았고 간간이 기업체 견학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대표단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켈컴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음.



- 연구소 측은 북한 대표단의 이번 방문이 민간 교류 행사라는 이유로 언론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대표단의 일정도 공개하지 않고 있음. 대표단은 26일 샌디에이고에서 관광을 한 후 27일 새벽 뉴욕으로 떠나 미국과 아시아의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세워진 비영리·정치재단인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음. 이들은 다음 달 2일까지 미국에 머물 예정임.

● “美 대북식량지원 당장은 없을 듯” <폭스뉴스>(3/26)

- 60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긴급한 식량지원 필요성에 처해 있다는 유엔 보고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할 급박한 계획은 없다는 점을 미 국무부가 시사했다고 폭스뉴스가 26일 전했다.
- 이 방송은 앤디 레인 국무부 부대변인이 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한 폭스뉴스의 질문에 “우리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음. 하지만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음.

● “美 대북 식량지원에 매우 신중”(3/27)

-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북한의 식량사정이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의 발표에 대해 의외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 식량평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배급량 ▲도정률 ▲하곡수확량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음.
- 정부 고위소식통은 27일 “지난 25일 WFP를 비롯한 국제기구 실사단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주요국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북한의 식량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했다”고 소개하고 “그러나 설명을 들은 주요국들의 반응이 예상과는 달리 냉담한 편이 없다”고 말했음. 설명회에는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를 비롯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음.
- 이 소식통은 “주요국들은 WFP의 보고내용을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며 “무엇보다도 배급량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WFP측이 칼로리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여 잡아서 식량부족분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음. 이 소식통은 특히 “인민들과는 달리 북한군은 충분한 양의 쌀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군량미 현납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음.
- 이 소식통은 이어 “도정률도 우리나라에 통상 적용되는 28% 정도를 적용하지 않고 35% 이상 적용하면서 전체적인 생산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음. 그는 또 “보리, 밀 등의 하곡수확량이 겨울 혹한으로 인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북한은 이모작을 하지 않아 하곡수확량이 전체 곡물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 이 10% 안팎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그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미국이 대북 식량 지원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매우 신중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북한의 쌀 지원 요청이 내년 강성대국 건설 이벤트를 앞둔 비축용의 성격이 강하다는데 한·미 당국의 인식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 이 소식통은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대북 식량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내 비정부기구(NGO)들의 로비가 크기도 하지만 대북 식량 지원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 중·북 관계

● 북한, 중국에서 식량 확보에 안간힘(3/22)

- 심각한 식량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중국에서 식량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은 22일 “북한이 해외 공관에 할당량을 배정, 식량 확보에 나서도록 지시했으며 선양 주재 북한 총영사관에도 옥수수 5천t이 할당됐다”며 “북한 총영사관은 중국 동북 3성 정부에서 각각 1천t씩 지원받아 3천t을 해결했고 추가 식량 확보를 위해 중국 내 조선족 기업인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한 조선족 기업가는 “최근 선양의 북한 총영사관이 대북 무역을 하거나 북한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조선족 기업인들에게 수천t에서 많게는 1만t의 옥수수 지원을 요청했다”며 “지원하고 싶어도 중국 당국의 식량 수출 규제에 따라 북한으로 보내는 식량에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 일부 조선족 기업인들은 이에 따라 직접적인 식량 지원 대신 해외 자선단체에 북한 식량 지원을 건의하거나 북한 총영사관에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리기범 선양 주재 총영사가 지난 1, 2월 동북 3성과 연변(延邊)조선족 자치주를 잇달아 방문한 것도 식량을 구하려는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리 총영사는 지난 1월 4일 천정가오(陳政高) 랴오닝 성장을 면담했고 하루 뒤인 5일에는 헤이룽장 하얼빈(哈爾濱) 빙설제에 참석했으며 6일에는 지린성에서 쑤정차이(孫政才) 서기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이어 같은 달 7일 헤이룽장 무단장(牧丹江)시를 8년 만에 방문, 북한 노동자 2천 명 파견 문제를 논의하는 등 불과 사흘 만에 동북 3성을 모두 도는 이례적인 강행군을 했다.
- 리 총영사는 또 지난달 11일에는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중국 관료들과 각계 조선족들을 초청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



16일)을 경축하는 연회를 열었으며 나흘 뒤인 15일에는 연변 노동자문화궁에서 재중 조선인총연합회가 주최한 ‘2.16 경축공연’을 참관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리 총영사가 천정가오 랴오닝 성장을 면담한 지 이틀 뒤인 지난 1월 6일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천 성장이 김 위원장에게 주는 선물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그러나 선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달 10일 인터넷 판을 통해 북한이 지난해 말 세계 40개국 재외 공관에 할당량을 배정, 각국 정부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라고 지시했으며 영국 외무부도 북한 대사관이 영국 정부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음.

● <중지린성, 대북 경제 확대 ‘공들이기’>(3/23)

- 북한의 평양상품전람회 참가에 적극성을 보이고 북한을 배려한 것으로 보이는 상품전람회 개최에 나서는 등 중국 지린(吉林)성이 대북 경제 확대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음. 다음 달 창춘(長春)에서 한국과 북한 등 동남아국가 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동남아·변경지역 국제상품투자협력전람회’가 열린다고 길림일보(吉林日報)가 23일 보도했음.
- 내달 24-30일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8천㎡ 규모의 전시장에 ▲동남아 상품 전시관 ▲변경지역 상품 전시관 ▲대만 상품 전시관 등으로 나뉘어 300여 개의 부스가 설치, 운영되며 국내외 기업과 무역업자 1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임.
- 이번 전시회에서는 상품 전시·판매는 물론 참가 업체 간 투자와 경제 협력 논의도 이뤄짐. 한국과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 150여 개 기업이 참가 신청을 냈으며 북한도 참가가 확정됐음.
- 전람회 명칭에 ‘변경지역’을 사용하고, 변경지역 상품 전시관을 별도 운영기로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전람회는 지린성이 최근 들어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선 북한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내 대북 전문가들이 분석했음. 내이멍구(內蒙古)와 헤이룽장(黑龍江), 랴오닝(遼寧)성에 둘러싸인 지린성이 변경을 이루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함.
- 지린성은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해 있으며 지난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의 방문을 계기로 훈춘-라진, 투먼-청진 루트를 통한 동해 항로 개척과 북한 지하자원 협력개발 등 대북 경제 협력 확대에 공을 들여 왔음. 창춘시 무역협회가 오는 5월 개최되는 제14차 봄철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참가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음.
- 이 협회는 최근 평양전람회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시장을 개척할 좋은 기회라며 현지 기업들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

● **작년 북·중 교역 35억 달러…32% 증가(3/23)**

-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전년도보다 32% 증가한 35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북한이 중국에 석탄을 대량 수출하고 중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등 ‘연료 돌려막기’에 나선 때문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전했다.
- RFA는 중국의 해관과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작년 양국 교역액이 총 34억6천만 달러로 전년도 26억2천만 달러에 비해 32% 증가했으며 양국 교역액이 30억 달러를 넘은 것은 2004년 이래 처음이라고 전했다. 또 작년 북·중 교역에서 북한의 무역 적자액은 약 10억9천만 달러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임.
- 한국무역협회도 보고서를 통해 작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11억8천만 달러, 수입액은 22억8천만 달러로 총 34억6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RFA는 북한의 대중 수출품 중 광물성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은 2008년부터 지속되어 온 현상이며, 작년 광물성 제품의 수출액이 전년도보다 무려 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원유로, 중국 해관이 발표하지 않은 8~11월 통계치를 제외한 전년도 총 원유 수입액과 비교하면 무려 98% 늘어났다. 원유에 이어 휘발유 등 석유연료와 수송용 자동차, 섬유제품, 곡물 등이 뒤를 이었다. 곡물 수입 현황을 보면 밀가루 수입이 전년 대비 200%, 쌀과 대두는 71%와 40%씩 증가했고 비료 수입도 전년도보다 85%나 늘었다.
- 한편 작년 남북 교역액은 19억1천만 달러로 북·중 교역액의 55% 수준에 그쳐 남북 간 긴장으로 남북 교역이 많이 위축됐음을 보여준다고 RFA는 전했다.

● **“北대표단, 베이징 도착..김정은 방중준비 가능성”(3/25)**

- 북한 노동당 국제부 관계자들로 보이는 대표단 약 10명이 24일 평양에서 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요원이 공항에 출영 나온 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결정된 3남 김정은의 방중 준비와 관련된 대표단 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 북·중 정상 간 상호방문 문제는 북한 노동당 국제부와 중국 당대외연락부가 창구를 맡고 있음. 그간 소식통들은 북한과 중국이 김정은 방중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김정은이 방중 해 중국 최고지도자들을 만나면 김정일의 후계자로서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양측 관영매체와 중국 당대외연락부는 북한 당대표단의 동정을 일절 전하지 않고 있음.



● 北 최태복 베이징 방문..김정은 방중협의說(3/27)

- 북한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일행이 26일 영국방문길에 베이징에 일시 체류,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 문제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 의장 일행은 26일 고려 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 주중 북한 대사관 측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모처로 이동, 하룻밤을 베이징에서 보낸 후 27일 영국을 향해 떠난 것으로 전해졌음.
- 최 의장의 베이징 체류 일정은 길지 않았으나 김정은의 방중이 양국간 주요 외교현안이 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 의장 역시 중국 측과 김정은의 방중에 관해 얘기를 나눴을 공산이 큰 것으로 베이징 외교가는 추정하고 있음.
- 김정은의 방중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김정은이 다음 달 7일 열리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임명되는 절차를 밟고서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北김영남, 지진 피해 日총련에 위로전문(3/21)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1일 지진 피해를 본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에게 위로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김 상임위원장은 서만술 의장 앞으로 보낸 전문에서 “일본 도호쿠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넓은 지역에서 대지진과 해일로 총련 조직과 동포들 속에서 많은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에 접해 총련 중앙상임위원회와 피해지역 총련 일꾼과 동포,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동포애적 위문을 보낸다”고 밝혔다.
- 그는 “총련의 모든 조직들과 동포들이 불굴의 의지와 뜨거운 동포애, 단합된 힘으로 지진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안정된 생활을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 北, 日에 10만 불 위문금...동포엔 50만 불(3/24)

- 북한이 대지진 참사를 겪은 일본의 재일동포에게 50만 달러를, 일본 적십자사에 10만 달러를 위문금으로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 명의로 재일동포에게 위문금 50만 달러를 보내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또 조선(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도 일본적십자사에 10만 달러의 위문금을 보내고 막대한 인명 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안은 강진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했다.
- 북한의 이번 위문금 전달은 3대 세습 등에 반감을 품고 있는 조총련 조직을 추스리면서 냉각된 북·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



로 보임.

마. 기타

● 유엔 인권이사회에 北인권결의안 제출(3/22)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으며 이번 주 내 본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전했다.
- 인권결의안에는 정치범과 복송된 탈북자에게 고문이 자행되고 강제 수용소가 운영되는 등 북한사회에 인권유린이 만연해 국제사회가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VOA는 설명했다. 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취약 계층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도 촉구했음.
- 이 결의안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41개국이 공동제안했으며 인권이사회는 이번 주 안에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으며 작년에는 28개국의 찬성과 5개국의 반대, 13개국의 기권으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고 VOA는 전했다.

● 유엔 “北 인권침해 심각” 결의안 채택(3/24)

-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24일 “북한의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했음.
-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상정한 이 결의안은 이날 UNHRC 47개 회원국 가운데 30개국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음. 결의안에 반대한 국가는 중국 등 3개국 이었으며, 11개국은 기권했음. 지난해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 결과와 비교하면 찬성은 2표가 늘었고 반대는 2표가 줄었음.
-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고, 식량 등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또 지난해 6월 제 1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비릿 문타폰 보고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다루스만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북한 당국에 다루스만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음.
- 서세평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표결에 앞서 대북 인권결의안은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특별보고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한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 기대(3/22)

- 미국은 21일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미사일 방어(MD)와 관련된 협력을 거듭 기대했음. 엘런 타우서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사일방어 문제와 관련된 포럼에 참석, “우리는 좀 더 나은 능력의 (MD)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일본,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 호주 등과 같은 국가들과 좀 더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기회가 있다”고 밝혔음.
- 그는 이어 “우리는 동맹국들의 군함이 미사일방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 군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한 센서들을 전 세계에 배치하기 위해 그들과 협력할 수도 있다”고 말했음.
- 그는 미사일 방어는 미국 입장에서 국가적으로 우선적인 초당적 사안이라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이들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한·중 관계

● 김외교, 28~30일 방중..북 핵 대응 협의(3/22)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오는 28~30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외교통상부가 22일 밝혔음. 김 장관은 방중 둘째 날인 29일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를 예방할 예정임. 김 장관이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중국을 방문하기는 처음으로 지난달 양제츠 외교부장의 방한에 따른 답방의 의미가 있음.
- 김 장관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내년엔 수교 20주년을 맞는 양국관계 발전 방안, 경제·통상 분야의 실질적 협력,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북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6자회담의 재개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 측은 6자회담에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UEP 대응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측은 신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자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교부 관계자는 “김 장관의 방중은 한·중 외교장관간 연례 상호방문 합의에 따른 것으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 한·일 관계



● <김 총리 “일본에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3/21)

- 김항식 국무총리는 21일 일본 대지진·쓰나미 희생자 조문소가 마련된 주한 일본대사관을 방문,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음.
-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대사관을 찾아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우리 국민도 일본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일본이 다시 회복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음. 이에 무토 대사는 “어려운 때 총리가 직접 조문을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음.
- 김 총리는 이어 조문록에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이 다시 우뚝 일어설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적고,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했음. 김 총리는 조문을 마치고 차량에 타서도 창문을 내리고 무토 대사에게 큰 목소리로 “힘내세요”라고 재차 위로했고 무토 대사도 거듭 사의를 표했음.

● 韓日단체, 日교과서 ‘역사왜곡 반대’ 공동성명(3/21)

-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정·발표를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음. 국내 역사·시민단체로 구성된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21일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사카에 모여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포함된 일본 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발표에 반대하는 ‘한일 시민우호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음.
- 이들은 성명에서 “3월 말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에서는 매우 편협하고 자국중심주의적인 내용의 교과서가 통과돼 8월부터 전국 800여 곳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 관계를 고려할 때 우려스럽다”고 말했음.
- 또 “일본 학생들이 편향되고 자국중심주의적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로 공부하며 우호국에 대한 악감정과 배외주의적인 내셔널리즘을 갖게 될 것도 우려된다”며 “일본 정부 스스로 만든 ‘근린제국조항’ 원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근린제국조항’은 역사 서술에서 이웃나라의 역사 감정을 배려해야 한다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기준으로, 일본은 1990년대만 해도 이 조항에 따라 독도 관련 기술을 자제해왔지만 최근 사문화되다시피 했음.
- 이번 성명에는 역사문제연구소,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한국 내 24개 단체와 ‘에히메교과서재판을 지원하는모임’, ‘교과서문제를 생각하는 시민네트워크·히로시마’, ‘아이들에게 주지마! 위험한 교과서 오사카모임’ 등 일본 내 94개 단체가 참여했음.
- 양국 시민단체 소속 회원 100여 명은 공동성명 발표에 앞서 ‘일본 역사 교과서 검정’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도 개최했으며 22~23일에는 오사카부청,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등을 돌며 역사 왜곡에 반대하는 공동기자회견, 교육장(교육감)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임.



● 간 총리, 여야 대표에 감사 서한(3/22)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지진피해를 위로하는 여야 대표의 서한에 대해 지난 21일 감사의 뜻을 담은 답신을 보내왔다고 각 정당이 22일 밝혔다.
- 간 총리는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손학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따뜻한 위로에 대해 일본 정부 및 일본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 간 총리는 이어 “일본 정부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온 국민과 함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난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 앞서 여야 대표들은 지난 12일 일본 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 서한을 간 총리 및 주한 일본 대사관 앞으로 발송한 바 있음.

● 정부, 日오염지역 식품 잠정 수입중단(3/25)

- 정부는 25일 일본 원전 사고로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지역의 식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수입 중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 이런 조치가 들어갔다고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이 발표했다.
- 정부는 우선 일본에서 섭취 제한 및 출하 정지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오염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 후쿠시마현 시금치·양배추·경립채·브로콜리·콜리플라워 등이 일본 정부에 의해 섭취제한 대상으로 지정됐음. 이바라키·도치기·군마현산 시금치·카키나, 후쿠시마현 우유·순무, 이바라키현 우유·파슬리 등은 출하 제한 대상임.
- 정부는 앞으로 기준을 초과해 추가 오염이 확인되거나 일본이 신규로 출하정지를 하는 품목도 즉시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라. 중·일 관계

● <日대지진> 홍콩언론 “중·일 관계 우호적”(3/21)

- 일본 대지진 여파로 중국과 일본 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음.
- 영토분쟁 등으로 갈등관계에 있던 중일관계가 우호적인 국면으로 바뀌었음을 입증한 단적인 예는 지난 19일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였음.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은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 剛明) 일본 외무상에게 일본 국민이 도호쿠(東北) 대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대해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추가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약속했다고 SCMP는 전했다.



- 양 부장은 회담에서 “일본이 매우 심각한 지진과 해일 피해를 당해 많은 인명과 재산손실을 입은 데 대해 중국 정부와 인민은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일본 측의 수요에 따라 더욱 많은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외교부장은 또 마쓰모토 외무상은 물론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연내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하기도 했다.
- 일본 언론 매체들도 3국 외교장관 회담 내용을 전하면서 양 외교부장이 회담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이끌었다고 보도했다.

● 中 “日 위기에 IAEA가 더 큰 역할 해야”(3/22)

- 중국이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2일 보도했다.
- 황웨이 IAEA 중국 부대사는 21일 “국제사회는 IAEA가 일본이 핵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부대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태와 관련한 IAEA 특별회의에서 일본 원전 상황은 국제사회에 매우 중대한 문제이자 우려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 황 부대사는 중국은 사태의 발전 추이를 자세히 주시하고 있으며 일본 원전과 관련한 정보를 적기에 정확히 받아보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 中, 日 일부 지역 농산물 수입 중단(3/25)

- 중국이 방사성 물질 오염 우려가 제기된 일본 내 일부 지역의 식품과 농산물 수입을 중단했다. 중국 국가감독검사검역총국(질검총국)은 25일 폭발 사고 이후 방사선이 유출되고 있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주변 5개 현에서 생산된 유제품과 야채, 과일, 어류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5개 현은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이바라키(茨城), 도치기(栃木), 군마(群馬), 지바(千葉) 등임.
-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러시아와 호주, 싱가포르, 미국, 한국, 대만에 이어 나온 것임. 대만은 일본에서 수입한 조개 등에서 요오드-131 등 방사성 오염 물질이 미량으로 검출되자 이날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내 5개 현에서의 식품 수입을 중단했다.
- 질검총국은 지난 11일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여파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가 나자, 검역당국에 철저한 방사선 검사 실시를 지시한데 이어 5개 현 외에 일본 내 다른 지역에서 수입되는 식품과 농산품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중국 정부는 일본에서 방사성 오염 물질이 더 확산하면 수입 금지 지역도 더 늘린다는 방침임.
- 중국 정부는 식품 안전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최근 발생했던 소금 사재기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



고 있음.

마. 중·러 관계

● 中헤이룽장, 사할린과 우호관계 협약(3/24)

- 중국의 대 러시아 교역 거점으로 떠오른 헤이룽장(黑龍江)성이 러시아 사할린주와 우호관계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흑룡강일보가 24일 보도했음. 양측은 이를 통해 호혜적인 경제 협력과 무역 확대, 합작 투자에 나서기로 했으며 문화와 교육, 의료보건, 스포츠 등 민간 교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음.
- 헤이룽장성은 한때 헤이샤즈(黑瞎子) 삼각주 국경 분쟁으로 러시아와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올해 들어 이 삼각주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변경지역 경제협력지대를 건설키로 하는 등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에 적극적임.
- 러시아가 지난 1월부터 시베리아 송유관을 통해 매달 131만8천t씩 보내는 원유도 헤이룽장을 거쳐 중국에 공급됨. 헤이룽장성은 원유 등 러시아 지하자원 수입을 더욱 확대, 중국 동북지역의 자원난을 해소할 계획임.
- 중국 국가개발은행이 최근 헤이룽장성을 러시아 경제협력 핵심지역으로 선정, 양국 경제협력지대 인프라 구축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앙 정부도 헤이룽장성의 대 러시아 교역 확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